

生保, M&A 큰장... KDB·ING 등 몸값 천정부지

**KDB, 3000억 유상증자 끝내
KB·하나금융 등 인수 염두
ING생명도 연내 매물 가능성**

올해 보험업계의 인수합병(M&A)이 가시화되고 있다. 잠재적 매물로 꼽히는 보험사들이 잇달아 몸값을 높이면서 금융지주 등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월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그간 재무건전성 악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던 KDB생명은 전날 대주인 KDB산업은행의 366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완료했다.

이번 증자로 KDB생명의 보험금 지급 여력(RBC)비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16.18%에서 약 50%포인트 상승한 160%대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 KDB생명, 대주주 유증 완료

KDB생명은 지난해 3분기 531억원의 누적 당기순손실에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에도 미치지 못하는 RBC비율로 일부 "문을 닫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KDB생명은 대주인 산은에 자본확충을 요청했고 사측에선 증자 조건으로 KDB생명의 인원 감축 및 점포 통합합 등을 요구하는 등 구조조정 작업을 선결토록 했다. KDB생명은 당장 기존 930명에 달하던 기존 인력을 희망퇴직을 받아 700명까지 줄였고 이날 3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KDB생명은 올해 신종자본증권 발행



정재욱 KDB생명 대표이사 내정자. /KDB생명

등 추가 자본확충을 통해 RBC비율을 200%까지 끌어올리는 등 지속적인 재무건전성 개선 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은은 보험업에 정통한 인사를 KDB생명의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하고 향후 매각 작업을 위한 포석 마련에 나섰다. 보험개발원 등을 거친 정재욱 KDB생명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는 오는 2월 21일 임시주총 및 이사회에서 선임될 예정이다. 정 신임 대표이사는 과거 1999년 국내 생보사 상장 1차 태스크포스(TF)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LIG손보·하나HSBC생보 등 사외이사를 역임하며 보험사를 경영한 바 있다.

산은 관계자는 "그간 자본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온 KDB생명은 이번 유상증자로 경영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정 신임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KDB생명 전경.

기업가치 제고 노력에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 KB금융 등 보험사 인수 적극 검토

산은의 이번 증자로 KDB생명의 매각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산은은 지난 2014년 두 차례 KDB생명 매각에 나선 바 있다. 2016년에는 세 번째 매각에 도전했지만 본입찰에 중국계 자본 한 곳만 참여하는 등 결국 무산됐다. 시장에선 매각 시기로 올 하반기를 보고 있다.

KDB생명이 매각을 염두한 곳으로 KB금융지주가 꼽힌다. 지난해 연임에 성공한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생명보험 쪽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강하고자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KB금융은 과거에도 현대증권, KB손보 등 M&A 성공 경험이 다분해 이번 생보사 인수



ING생명 본사 전경.

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3연임에 성공한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이 지주사 포트폴리오 강화를 염두하면서 보험사 인수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은행에 집중해온 사업구조를 보험, 증권, 카드 등 다각화하여 질적 성장에 나설 것이라 설명이다. 실제 하나금융은 그룹 전체 수익구조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달한다. 반면 KB금융과 신한금융의 경우 각각 은행 비중이 45.3%, 40% 수준이다.

하나금융은 현재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계열사 수익구조 다변화 전략 관련 컨설팅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 M&A전략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시장에서 하나금융이 보험사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고 있

다.

다만 KDB생명은 함께 시장 매물로 꼽히는 ING생명에 비해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ING생명의 대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올해 연말까지만 ING상표를 쓸 수 있게 되면서 ING생명은 연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KB금융의 경우 지난 2012년 ING생명이 시장 매물로 나왔을 당시 인수전에도 참여한 바가 있어 유력 인수 후보로 꼽힌다.

관건은 결국 매물의 '몸값'이 좌우할 전망이다. ING생명은 작년 5월 주당 3만 3000원 공모가로 상장했는데 전날인 30일 증가기준 5만 7700원까지 올랐다. 대주인 MBK파트너스가 가진 지분은 2조 6000억원(59.15%) 수준이다. 이에 따른 매각가격은 최소 3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반면 KDB생명은 낮은 수익성 및 자본건전성에도 불구하고 산은의 투자원금만 1조원에 달하는 등 이로 인해 매각가가 시장 예상보다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과거 세 차례나 매각이 불발된 KDB생명에 대한 매력도 ING생명과 비교해 떨어진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새 회계제도 도입으로 보험사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경우 관련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KDB생명으로선 올해 매각되는 방안이 최선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KB금융 '휴대폰 음파' 결제모델 특허 취득

해킹 불가능·보안성 갖춰

KB금융그룹은 지난 25일 '휴대폰 음파(Sound Wave)를 활용한 결제 모델'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모델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영역의 음파(고주파)를 다양하게 패턴화 하고, 이를 결제 시마다 고객과 일대일로 매칭해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송출하면 상대방 휴대폰 마이크를 통해 음파패턴을 입력받아 결제하는 기술이다.

개별 고객 간 매칭된 정보를 기반으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 및 결제용 단말기(POS 등) 설치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다.

또 결제 시 이용되는 순간 매칭 값(고주파)은 일회용 랜덤 패스워드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해킹이 불가능해 보안성 면에서도 안전성을 갖췄다.

KB금융은 이 특허를 활용해 운영 중

인 계열사 앱을 통해 '폰-TO-폰 결제', 인증 및 마케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남아 등 카드 결제망이 보편화되지 않은 해외 진출 시 현지 고객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드 결제가 어려운 동남아 국가에 음파 결제 환경이 구축될 경우, 고객은 현금 없이도 휴대폰 앱 상 충전된 금액을 상점 주인의 등록 계좌로 간편하게 보낼 수 있는 '폰-To-폰 결제'가 가능해진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4차 산업 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 금번 특허 등록을 시작으로 그룹과 계열사의 특허 취득을 확대하고, 등록된 특허 기술이 프로세스 개선과 고객 편의성 제고에 활용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조직형 車 보험사기혐의 22개 조직 적발

고의 사고 유발해 합의금 등 편취
혐의자 100명·편취보험금 14억원

금융감독원이 관계형분석(SNA) 기법으로 조직형 자동차 보험사기를 대거 적발했다.

금감원은 1월 31일 지인과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 간 역할을 분담한 후 고의사고 등을 유발하고 합의금 등을 편취한 22개 보험사기 혐의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모형 자동차 보험사기에 SNA 분석모델을 활용한 첫 기회조사로, 2012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사기 혐의를 대상으로 했다.

SNA는금감원의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에 집적된 데이터에서 운전자 등 자동차 사고의 관련자 간에 관계패턴을 분석해 공모형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혐의조직을 도출하는 기법이다.

적발된 22개 보험사기 혐의조직엔 100명의 혐의자가 연루됐으며, 이들이 편취

(사고유형 현황)

(단위: 천, %, 백만원)

구분	차선변경	후미추돌	주정차	법규위반	자차단독	후진사고	기타	합계
사고건수	309	129	67	24	21	21	27	598
비중	52	22	11	4	4	4	5	100
편취금액	734	310	168	63	55	40	35	1405

/자료=금융감독원

한 보험금은 14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는 일회성 역할분담 등 지능적인 공모형 보험사기 유형을 보였다.

A씨 등 지인관계인 11명은 한 차량에 다수 동승한 채 서로 가해자, 피해자 역할을 바꿔가며 32건의 경미한 접촉을 유발하는 수법 등으로 60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또 운전직 종사자 등 자동차 운전 및 정비와 관련된 직장 내에서 동료 간 공모해 다수의 고의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

B씨 등 택시기사 4명을 포함한 일당 8명은 차선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추돌하는 등 다수의 경미한 사고를 유발해 1

억1100만원(55천)을 편취했다.

3~4인 이상 여러 사람을 태우고 자동차 사고를 유발한 후 탑승자 전원이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도 있다.

사기범들은 주로 차선변경 등 경미한 사고를 유발해 척추 염좌나 단순 타박상 등 가벼운 부상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했다.

보험사기 혐의자의 97%가 남성이었으며, 이 중 20~30대의 비중이 74%였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100명을 전국 관할 경찰청에 통보하고,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전국 수사관서와 협력하는 등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카뱅, 캐시백 최대 5만원 '프로모션 시즌2'

SSG닷컴 체크카드 혜택 가맹점 추가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은 2월 1일부터 '카카오뱅크 프렌즈 체크카드 캐시백 프로모션 시즌2'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지난해 카카오뱅크 출범부터 1월 말까지 제공했던 시즌1의 혜택을 대부분 유지하되, SSG닷컴과 신라면세점을 신규 가맹점으로 추가하고 월 최대 캐시백 혜택을 최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린 것이 특징이다.

프로모션 혜택 대상 업종과 가맹점은 ▲쇼핑/커피(YES24, 옥션, G마켓, SSG닷컴, 커피 가맹점) ▲엔터테인먼트(CGV, MELON) ▲마트/주유(GS칼텍스, 대형마



트 가맹점) ▲해외/면세점(해외 가맹점, 신라면세점) 등이다. 전원 결제실적 30만원 이상 고객에게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오는 8일부터는 카카오뱅크 프렌즈 체크카드의 해외 이용 범위도 확대한다. 해외 결제가 제한됐던 항공, 렌터카, 호텔, 무인주유기 등 해외 T&E(트래블&엔터테인먼트) 업종의 가맹점에서도 카카오뱅크 프렌즈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채신화 기자

금융위, 오늘 온라인 햇살론 출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등 대상
금리 1.3%p 절감·최대 1500만원

2월 1일부터 온라인 햇살론을 출시한다. 이에 따라 서민들은 은행 방문 없이도 연 1.3%포인트 낮은 금리로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달부터 금융회사 영업시간 중 방문이 어려운 서민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햇살론을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햇살론 대상자는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연 소

득 4500만원 이하인 자다. 이들 중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소득·재직 등 자격확인이 가능한 저소득·저신용자는 온라인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3개월 이상 재직 및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사실만 확인하면 된다.

온라인 햇살론은 생계자금을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없이 3년 또는 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종전보다 대출원가가 절감돼 금리가 차구 상품보다 약 1.3%포인트 인하됐다. 온라인 햇살론의 금리는 연 7~8% 수준이며, 연간 약 0.6%의 보증료는 별도다.

서류제출·약정 등의 절차도 온라인으로 이뤄지므로, 대출실행기간도 현행 평균 4영업일에서 1~2일로 단축된다. /채신화 기자